디지털 노마드(Digital Nomad)의 삶은 매우 자유로운 경험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책임 또한 뒤따른다. 디지털 노마드는 얼핏 보기에 해외 곳곳을 누비며 자유롭게 일하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해외를 자유롭게 누비는 것은 겉보기보다 자유롭고 편하지 않다. 나라마다 다른 법률이 있고 서로 다른 문화가 있다. 당연하게도 각 나라를 방문하기 전에 그 나라의 법률과 문화를 숙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심한 경우 사회적으로 매장당할 수도 있다. 또한, 거주지가 없는 것이 처음에는 편할 지 모른다. 하지만, 개인 용품과 생활 용품을 계속해서 이동시켜야 하는 것은 무척이나 힘든 일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국민에게서 신비한 동물을 보는 듯한 시선을 견뎌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시선이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단일 민족국가는 외국인에 대한 편견이 있다. 이렇듯, 디지털 노마드가 되는 것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다.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이다.